

大菴 朴槿의 사물인식방법과 의식지향

최 은 주*

- I. 머리말
- II. 朴槿의 사물인식방법
- III. 朴槿의 의식지향과 그 의미
 - 1. 經書 탐독을 통한 爲己之學의 성취
 - 2. 현실 비판을 통한 救國意志의 표출
 - 3. ‘實’과 ‘道德’의 추구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大菴 朴槿(1549-1606)의 사물인식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의 의식지향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박성이 살았던 조선 중기는 우리의 역사에서 학문적,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 주목되는 시기이다. 주자학의 연구가 심화되었고, 사림파에 의한 정치가 실현되었으나 이후 각 정파 간의 대립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임진왜란을 겪으며 나라 안팎으로 혼란하던 시대였다. 이러한 시기였기에 당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각자 지향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였다.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 skyey0324@daum.net

본고에서는 박성의 사유를 이해하고 그가 지향했던 바를 살펴보기 위해 그의 사물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가 성리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이루어갔던 16세기의 보편적인 경향을 따르면서도 임진왜란의 사회적 혼란과 현실의 모순에 대해 그 속에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고 문학작품을 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당시 지향했던 바는 경서 탐독을 통해 위기지학을 이루고, 거침 없는 현실 비판을 통해 구국의지를 표출하는 데 있었으며, 이는 작품의 창작에 있어 이념적 인식과 역사적 인식 두 방향으로 극대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의 삶이 시대적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학문에 힘썼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그의 의식이 ‘實’과 ‘道德’에 바탕을 둔 경향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 주제어

대암 박성, 사물관인식방법, 의식지향, 16세기, 관물

I. 머리말

大菴 朴愷(1549-1606)은 조선 중기의 인물로, 그가 살았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나라 안팎으로 혼란한 한편,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주자학의 연구가 깊어졌으며,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는 조선 전기 이후로 사림파에 의한 정치가 실현되었으나 이어서 각 정파 간의 대립이 심화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기를 살아간 이들에게는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각자 지향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였다. 본고에서 살펴볼 박성 또한, 이 시기를 살았던 여타 인물들처럼 시대 속에서 자신이 나아갈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활동하였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성의 본관은 密陽, 자는 德凝, 호는 大菴이다. 조부는 감찰 朴純이고, 부친은 생원 朴思訥이며, 모친 光山金氏는 관찰사 金緣의 딸이다. 그는 洛江七賢¹⁾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학문적 역량과 당대에 보여준 실천적 행동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연구는 그의 삶과 시세계를 전체적으로 살핀 연구가 유일하다.²⁾ 이 논의는 『大菴集』이 국역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의 시 작품을 주제적 측면에서 분류한 것이다. 이후 대암선생문집국역편찬위원회에서 그의 문집을 번역하면서 문집을 번역한 정선용에 의해 해제가 작성되었으나,³⁾ 이는 앞선 백기훈의 논의를 요약하는 측면에서 서술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체로 그의 삶과 문학 작품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측면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대의 보편적인 시대 흐름을 중심으로 그를 좀 더 밀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
- 1) 洛江七賢은 ‘낙동강 변의 일곱 현인’이란 뜻으로, 大庵 朴愷을 비롯하여 松庵 金沔, 玉山 李起春, 晴暉堂 李承, 六一軒 李弘量, 寒岡 鄭述, 茅齋 李弘宇를 말한다.
 - 2) 백기훈, 「大庵朴愷研究」,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3) 정선용 역, 『국역 대암선생문집 상·하』, 대암선생문집국역편찬위원회, 2011.

먼저 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가계⁴⁾와 혼맥을 살펴보면, 당시 영남학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퇴계학과와 남명학파에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그의 외가는 퇴계학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외가는 禮安 烏川리로, 그의 외숙 後彫堂 金富弼(1516-1577)과 攄淸亭 金富儀(1525-1582)는 退溪 李滉의 高弟였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박성은 驪州李氏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 딸 둘을 두었는데,⁵⁾ 그와 사돈 관계에 있는 인물을 살펴보면, 큰딸은 晦齋 李彦迪(1491-1553)의 손자인 雪川 李宜活(1573-1627)에게, 작은딸은 海月軒 黃汝一(1556-1622)의 아들 黃中允(1577-1648)에게 시집갔고, 아들은 처음에는 石潭 李潤雨(1569-1634)의 딸과 혼인하였다가 다시 郭再祺의 딸과 혼인하였다. 황여일과 이윤우는 寒岡 鄭述(1543-1620)의 문인이며, 광재기는 南冥 曹植의 제자인 郭再祐(1552-1617)의 동생이다. 이처럼 그의 가계와 혼맥으로 이어진 관계망은 영남 전체를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학문적으로는, 먼저 洛川 裴紳(1520-1573)에게 수학하고, 정구의 문하에 출입하였다.⁶⁾ 이러한 사승관계 또한 그가 영남 전체를 아우르는 관계망을 지닐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 현재 남겨진 문집 상에는 鄭仁弘과 일정 기간 교류하다 그 관계를 끊은 것으로 나오지만, 다른 문헌의 기록으로 볼 때 그를 정인홍의 문인으로 볼 수 있는 점이 발견되기도⁷⁾ 한다. 아울러 그의 문집을 살펴보면 당시 영남학파

4) 박성의 가계와 생애에 대해서는 백기훈(2003)의 논의에 자세하므로, 본고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

5) 아들은 일찍 죽어 양자를 들여 후사로 삼았다.

6) 金世濂이 찬한 그의 묘비명을 보면, “정구와 도의로써 사귀었으며 …… 함께 토론하여 강명하면서 서로 더불어 이택하는 도움을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金世濂, 『大菴集』 권6, <有明朝鮮國朝散大夫靑松都護府使大菴先生墓碑銘>. “文穆公寒岡鄭先生以道德學問起嶺南 有道義交曰密陽朴公 …… 而其講明討論 相與爲麗澤之益者 亦且不少矣”

7) 박성은 정인홍의 문인록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왕조실록 및 여타 기록을 고려하였을 때 그를 정인홍의 문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내암문인록에 대한 자세한 것은 사재명의 「내암 문인의 현황과 동향」(『내암 정인홍』, 예문서원, 2010)을 참고할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金誠一(1538-1593), 정구, 趙穆(1524-1606), 曹好益(1545-1609) 등과 나는 다수의 편지를 비롯하여 贈答詩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그는 당시 영남의 퇴계, 남명, 내암, 한강학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그의 삶과 지향했던 바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하여 그의 사물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의식지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물은 우리가 속한 세계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사물인식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볼 사물인식은 단순히 외부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수동적인 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주체에 따라 변용되는 것으로, 한 개인의 의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을 제공한다. 사물인식은 철학·예술 등과도 관련 있지만, 인간의 사물인식에 대한 결과물이 문학작품의 창작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실제 작품에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장에서는 박성의 문학작품에 드러나는 사물인식방법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3장에서는 그의 의식지향과 그것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이러한 시도는 한 개인의 사적인 활동과 의식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며, 나아가 영남학과의 전체적인 지형도를 그리는 데도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II. 朴愷의 사물인식방법

박성은 당시 다수의 성리학자들처럼 문학을 본업으로 삼았던 자는 아니었다. 그의 문집을 살펴보면, 남겨진 詩文이 많지 않아 문집의 전체

수 있다.

분량이 적고, 특히 시 작품은 전체 124제로 여타 다른 문집과 비교했을 때 적은 분량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박성의 문인들이 제문에서 그를 두고, “저술에는 힘쓰지 않고”⁸⁾라고 표현한 것이나 “문장 따위를 짓는 말단의 것에 이르러서는 애당초 마음을 두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正하고 沖澹하였으며 性情에서 발하는 것이 周情孔思여서 성현의 말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 거의 드물었으니,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말이 있음을 믿을 만합니다.”⁹⁾라고 표현한 것 등에서도 그가 시문 창작이나 저술에 공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제문이라는 문체의 특성상 亡者에 대한 투식적 표현이 대다수를 차지하기는 하나, 앞서 예로 든 표현은 그의 삶과 지향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현전하는 작품의 수가 적기는 하나, 그의 의식이 뚜렷하게 반영된 창작물이 바로 시문이라는 점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과거 공부를 하였지만, 사마시에 급제한 이후로는 급제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 또한 조정에서 여러 번 학행으로 천거되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후 몇 번 관직에 나아갔을 뿐이다. 당시 유학자들의 출처관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자신이 살아가던 당시를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듯하다. 하지만 출사하지 않고 내적인 수양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의병 활동에 참여하여 누구보다 먼저 그 일을 해결하고자 힘썼다. 이러한 그의 실천적 면모는 그의 의식이 단순히 자신의 내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고 외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한 작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의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인식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박성의 사유를 이해하고 그가 지향했던 바를 살펴보기 위해

8) 李宜活, 『大菴集』 권5 부록, <祭文>. “不強著書”

9) 金光輔, 『大菴集』 권5 부록, <祭文>. “至於文字之末 則初不加意 而平正沖淡 發於性情 周情孔思 其不合於聖賢之言者幾希 信乎有德者必有言也”

이하 작품의 번역은 정선용이 국역한 『국역 대암선생문집 상·하』(대암선생문집국역편찬위원회, 2011.)를 따르되, 필요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제시하였다.

그의 사물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물관은 사물인식을 말하며, 여기서 인식은 객관적 실재, 즉 외부의 사물이 인식주체인 인간의 의식에 이론적으로 반영되는 과정 및 결과를 의미한다. 특히 작가에게 있어 이것은 ‘因物起興’의 문체와 결부되면서 창작과정과 함께 작품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인식의 방법론은 중요¹⁰⁾하다.

성리학자들은 사물에 대한 인식방법으로 ‘觀物’이란 용어를 제시하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관물을 통해 사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치를 읽어내고, 그 理를 체현함으로써 사물과의 합일을 이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성리학자라 할지라도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 동일할 수는 없으며, 한 작가라 할지라도 처한 환경이나 정서적 상황에 따라 사물은 달리 인식될 수 있다. 이는 대체로 셋으로 나누어 이해되는데, 즉물적 인식, 이념적 인식, 역사적 인식이 그것이다. 즉물적 인식은 시적 대상인 사물을 객관적 존재물로 보고 있는 그대로 포착하는 것이며, 이념적 인식은 사물을 ‘이치’가 드러나 유행하는 것으로 보고 대상 사물을 주제화하여 인식하는 것이며, 역사적 인식은 객관 사물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주체적으로 재해석해 내는 것이다.¹¹⁾

박성 역시 사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하였다. 특별한 상황에서 창작했다고 볼 수 있는 만사와 같은 작품을 제외하고 그가 창작한 거의 대부분의 한시는 관물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사물에 대한 인식은 나와 사물의 관계를 넘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작가가 사물을 통해 떠올리게 되는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작품의 이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물론, 작가의 의식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시라는 장르가 지닌 특성상, 당시 모든 작가들이 그러하듯이 박성에게도 즉물적 인식이 나타난다. 다음의 작품을 보자.

10) 정우락, 「16세기 사립과 작가들의 사물관과 문학정신」, 『남명학과의 문학적 상상력』, 역락, 2009, 552쪽.

11) 정우락, 위의 글, 552-557쪽 참조. 자세한 것은 정우락(2009)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前灘晚來急	앞여울물 저물녘을 재촉하니
也知山日低	산에 해 저름을 알겠네.
沙洲禽語斷	모래톱에 새들 소리 다 끊어지니
幽趣宵雲栖 ¹²⁾	깊숙이 구름 깃든 곳 정취가 깊네.

제시한 작품은 저녁 풍경을 그린 것으로, 즉물적 인식이 주가 되어 드러나고 있다. 심미의 대상으로 山水가 사용된 것은 매우 오래된 전통이다. 박성 역시 물과 산이라는 공간을 두고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물이 흐르는 청각적 심상을 해가 지는 시각적 심상과 연결하고, 새 소리의 청각적 심상과 구름을 중심으로 한 시각적 심상을 연결하였다. 이러한 시·청각적 이미지의 교차를 통해 저물녘의 풍경을 잔잔하게 드러내고 있다. 제시한 시는 자신이 속한 자연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기보다는, 수많은 한시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여 제시하는 즉물적 인식은 당시 사물을 인식하고 작품을 창작하는 데 있어 다수를 차지하는 특징적 경향이기도 하다. 박성 역시 이 작품 외에도 예천에 있는 淸遠亭에 방문하여 지은 시에서 “강산에 저물녘 경치 펼쳐졌으니, 가슴이 시원하여 술잔을 쪽 들이키네.”¹³⁾라고 한 것이나, 청송에 은거하면서 지은 시에서 “늘그막에 숲과 시내 경치 얻은 것이 좋아, 밤이 다하도록 창 열고 푸른 산 마주하네.”¹⁴⁾와 같이 읊은 것을 보면 자연 속에서 감발하여 사물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면모가 잘 드러난다. 이처럼 자연이라는 공간은 그에게 詩興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 朴惺, 『大菴集』 권1, <溪堂暮景>.

13) 朴惺, 『大菴集』 권1. <次淸遠亭主人韻>, “江山供暮景 飄洒引盃長”

14) 朴惺, 『大菴集』 권1. <昔余嘗遊雙溪書院 見寒暄先生古屏 其一幅畫雲山千疊 茅屋數間 中有幅巾端坐手闕芸篇者最愛翫 久而不忘 今適避兵入古松生 一日朝開卷闢窓 山中景物 與昔畫裡所見 宛然相似 遂吟成四韻以遣興焉>. “老來喜得林泉勝 竟夕開窓對碧岑”

하지만 박성의 전체적인 작품을 살펴보면, 이념적 인식이나 역사적 인식에 비해 즉물적 인식은 많이 약화되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자연의 공간에서 작품을 창작하더라도 외부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축소되어 나타난다. 앞서 제시한 작품을 비롯하여, 소수의 작품만이 즉물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박성은 자연의 풍광과 그것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사물들을 그대로 보고 포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식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내면 공간에서 사물을 새로운 대상으로 인식하고자 하였다. 이는 앞서 그를 두고 ‘문장을 말단이라고 인식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한 것을 떠올려 본다면 당연한 귀결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박성의 특징적인 면모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그의 문학작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세 가지 인식 가운데 이념적 인식과 역사적 인식으로, 이는 그의 삶의 행적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할 것이다.¹⁵⁾

먼저 이념적 인식을 살펴보자. 이념적 인식은 사물을 보면서 거기에 내재해 있다고 생각되는 이치를 살피는 것이다. 박성에게 있어 詩作은 이치를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도구였다. 그는 자연 속에 머물러 살면서 학문하는 자세를 견지했는데, 이러한 가운데 가장 힘쓴 것은 자연물을 통해 이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아래의 작품을 보자.

霧天孤月出	갠 하늘에 외로운 달 나타나거니
初脫黝雲屯	검은 구름 속에서 막 벗어나누나.
放彩乾坤朗	빛 발하면 온 천하가 환하여지고
埋光寔宇昏	빛 감추면 온 우주가 어둡해지네.
物來雖有蔽	사물 오면 비록 잠시 가려지지만
玉潔更無痕	옥과 같이 맑아 흔적 아니 남네.
本體方呈露	본래 모습 바야흐로 다 드러남에
驗吾德性存 ¹⁶⁾	나의 덕성 보존된 걸 징험하겠네.

15)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의 의식이 이념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고, 이 두 가지 인식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6) 朴惺, 『大菴集』 권1, <雲端露月>.

밤에 구름에 가렸다가 나오는 달을 보면서 지은 시이다. 앞서 즉물적인식이 드러나는 시들 역시 저물녘의 풍경을 포착하고 지은 시들이었지만, 지금 제시한 시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자연현상인 달이 가려졌다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여기에 현묘한 이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구름은 하나의 外物로 달을 가릴 수 있지만, 이것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며, 달의 본성은 옥처럼 맑기 때문에 외물에 가려졌던 흔적이 남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이는 외물과 접했을 때 사사로운 감정을 용납하지 않고 순수히 따르는 것과 연결되며, 결국 외물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덕성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자신이 계속해서 성리서를 읽으며 궁구하는 군자의 학문이기도 한 것이다. 다음의 작품을 보자.

霧空放素月	구름 걷힌 하늘에 흰 달빛 비치니
林外半輪明	수풀 밖으로 반쯤 둥근 달 밝게 떠오르네.
山氣霜逾重	산 기운 서리 내려 무거워지고
溪聲夜轉清	냇물 소리 밤이라 더 맑아졌네.
存心能自定	마음 보존하면 절로 안정되니
原始豈曾驚	시초를 궁구함에 어찌 놀라겠는가.
未逮堯夫境	소요부의 경지에는 못 미쳐도
安恬得本情 ¹⁷⁾	안온하고 느긋함은 본정을 얻었네.

제시한 작품 역시 밤과 달을 그 인식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이다. 그에게 있어 밤과 달은 단순히 심미적 자연 완상을 위한 시·공간적 배경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위의 작품에서도 알 수 있다. 자신이 시각을 통해 감응하고 있는 자연경물을 내면의 수양과 바로 연결 짓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흰 달빛”, “반쯤 둥근 달”, “맑은 냇물 소리”는 심미적이라 할 수 있지만, 단순한 완상의 대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原始要終에 힘쓸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지는 邵雍이 말했던 “달은 하늘 한가운데에 이르고, 바람은 물 위에 불어오네. 이와 같은 청아한 경지를, 아는 사람 아마

17) 朴惺, 『大菴集』 권1, <病劇述懷贈曹芝山>.

도 많지 않으리.[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清意味 料得少人知]”와 같은 경지이다. 시에서는 소용의 경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였지만, 마지막 구를 통해 그가 자신이 바라던 인욕이 사라지고 天理가 유행하여 도에 합치된 경지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그에게 밤이라는 시간과 달이라는 자연물은 자신의 마음과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해 주는 매개물로 인식되었다. 그는 마음의 능동적인 도덕실천 의지를 긍정하였기 때문에, 정구에게 올린 시에서 “전에 나는 얼음과 숲 섞여 있어서 어찌하여 외물만 쪽 흠모하였던가. 옥과 같은 그대 통해 심학을 익힘에”¹⁸⁾ 속세의 진흙을 씻어낼 수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어두운 밤을 읊은 다른 작품에서도 “동산 위 달은 더디 떠오르는데, 숲 골짜기 조용하여 소리가 없네. 어두운 방 속에서도 虛明하니, 道心이 이로부터 자라나리.”¹⁹⁾라고 한 바 있다. 밤에 달이 뜨는 것이 그가 인식한 사물이지만, 그는 단순히 밤이라는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제시한 시에서는 달을 통해 그 이치를 살폈다면, 여기서는 자신이 위치한 어두운 방이 그 인식의 중심이 됨을 볼 수 있다. 마음의 본체가 허명함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고요함 속에서 도심이 자라남을 밝혔다. 살아간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고 주변과 관계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이때 상황에 반응하고 관계를 맺는 일은 심이 주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도심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기준이 된다.²⁰⁾ 그러므로 이치를 지각하는 도심을 확고히 하여야 함을²¹⁾ 천명한 것이다.

다음의 작품을 보자.

-
- 18) 朴惺, 『大菴集』 권1, <奉贈鄭寒岡老兄>. “昔吾雜水炭 慕外一何低 倚玉開心學”
 19) 朴惺, 『大菴集』 권1, <暗夜>. “東嶺月上遲 林壑聞無響 暗室尙虛明 道心從此長”
 20) 전현희, 「주자(朱子)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한국철학논집』31, 한국철학사연구회, 2001, 309쪽 참조.
 21) 심은 하나이지만, 심은 理를 깨달을 수도 있고 욕구[慾]을 깨달을 수도 있다. 심이 리를 깨닫는다면, 그때의 심을 도심이라 부르고, 심이 형기를 깨닫는다면 그때의 심을 인심이라고 부른다.(전현희, 앞의 논문, 308쪽.)

畫閣高臨大海頭
鯨波萬里接天浮
平生心眼嘗嫌小
從此悠然上下流²²⁾

그림 같은 누각 높다랗게 큰 바다에 임해 있어
고래 같은 파도 만 리토록 하늘 닿아 떠 있구나.
평생 마음의 눈 작은 것이 싫더니
이로부터 유연히 위아래로 유행하리.

낙산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지은 작품이다. 강원도에 위치한 낙산사는 수려한 풍광을 지니고 있어 관동팔경으로 유명한 경승지였다. 그러나 박성은 이곳에서도 단순히 바다의 드넓음을 읊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이치를 찾아내고자 했다. 3구의 ‘心眼’과 4구의 ‘上下流’가 그것이다. ‘心眼’은 사물을 살펴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上下流’는 『孟子』에서 “군자는 지나는 곳마다 변화하게 되고, 마음을 둔 곳마다 신묘한지라, 위아래로 천지와 함께 유행한다.”²³⁾는 것을 의미한다. 바다를 보고서 자신의 평소를 떠올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는 천지의 조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에게 있어 자연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광에만 그치지 않고 이치가 내재되어 있는 공간이었다. 이 때문에 반복되는 자연현상이나 명승지에서도 生生之理를 포착해 내하고자 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준다.

그는 특정 공간뿐만 아니라 특정 사물에서도 생생지리를 포착해 내었다. 전나무를 읊겨 심으면서도 “깊은 절벽에서 자라나 곧은 마음 품고, 엄한 서리 찬 눈 오는 대로 다 맞았네. 읊겨 심어 생생의 뜻 도리어 더해졌거니, 어찌 구름 골짜기 깊이 있는 것만 같겠는가.”²⁴⁾라고 하였다. 그는 전나무를 “성인께서 직접 심은” 나무라고 하면서 지조의 상징으로 높인 바 있다.²⁵⁾ 때문에 전나무를 읊겨 심고자 한 것은 그것을 살리고 성인에 가까이 가고자 한 뜻이었지만, 그것이 만물의 이치, 즉 생생지리를 해친 행위임을 깨닫고 있다. 결국 인위적인 조장²⁶⁾ 행위가 해가 되

22) 朴惺, 『大菴集』 권1, <洛山寺望海>.

23) 『孟子』, 「盡心」, “夫君子所過者化 所存者神 上下與天地同流”

24) 朴惺, 『大菴集』 권1, <移檜>. “挺出窮崖抱苦心 嚴霜虐雪自能任 移根却害生意 爭似初藏雲壑深”

25) 朴惺, 『大菴集』 권1, <病檜歎>.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의 추구는 본질적인 것이나, 과정에 있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서 안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소나무를 옮겨 심고 지은 작품에서도 “빨리 크게 하면 끝내 시들시들해지니, 조장함이 있는 것과 해됨이 같음을 아네.”²⁷⁾라고 하여 빠른 성과를 위해 억지로 조장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버려두는 것과 같이 나뭇을 상기시킨 바 있다. 또 그는 잣나무를 옮겨 심고 지은 시에서도 “어느새 푸른 잎이 시들어 누래졌네.”²⁸⁾라고 하여 억지로 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함을 일상 속에서 되새겼다, 나무 등을 옮겨 심는 일은 식물을 키우는 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의 감상을 위해 그것이 지닌 본성을 고려하지 않고 옮겨 심는 행위는 결국 자연의 이치에 반하는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처럼 자연물을 단순히 완상하여 재현해 내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자연의 이치 속에서 인식하고 시로 구현해 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역사적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상에서 ‘格致誠正’의 학문을 하는 데 마음을 두고 여러 책을 읽으며 탐구하던 그였지만, 국가적 危難의 앞에서는 실천적 행보를 보였다. 임진왜란이라는 커다란 사건을 겪으며 이에 항거하기 위해 의병 활동을 펼치기도 한 것이 그것이다. 즉 그에게 있어 국가 앞에 펼쳐진 사건은 자신이 비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특히나 그는 갑자기 왜적이 침입한 데 대해 제대로 대응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보자.

가) 공은 왜적이 갑자기 쳐들어오던 날에 琵琶山에 있었는데, 반드시 창의하여 거사하려 하였다. 그러나 잠깐 사이에 사세가 바뀌어 이미 스스로 어떻게 세 볼 도리가 없었다. 공은 정인홍이 합천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송암 김면이 고령에서 떨어져 일어나고 광계수[광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광양정[광준]이 송암 김면의 진영에서 종사한다는 말을 들었다. 공은 이분들을 찾아가 함께 일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는 마침내 가솔을 이끌고 강을 건너가 군량을 調度하는 것을 하였

26) 『孟子』, 「公孫丑上」.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勿助長也”

27) 朴惺, 『大菴集』 권1, <移松>. “欲速終敎生意少 方知助長害均忘”

28) 朴惺, 『大菴集』 권1, <移栢>. “翻然緣葉轉凋黃”

다. 그리고는 온 정성을 다해 곡식을 모집하여 군량을 여유롭게 하였다. 이때 招諭使 金誠一이 처음 右道에 이르러 곧바로 의병 진영으로 와서 기뻐하는 한편 울면서 말하기를, “종묘사직을 보존함이 이로부터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공에게 참모가 되어 줄 것을 청하니, 공은 이를 흔쾌히 승낙하면서 죽음으로 보답할 것을 기약하였다.²⁹⁾

(나) 七載蠻氛惡	칠 년 동안 왜적들이 설쳐대는데
迂儒際此辰	못난 유자 이러한 때 삶을 사네.
鳴沙千里跡	우는 모래 천 리 길게 흔적 남았고
驚浪一孤身	놀란 물결 한 외로운 몸인 신세네.
暮雀喧危棟	저녁 까치 높은 기둥 위에서 울고
寒兒泣路塵	추운 아이 길가 먼지 쓰고서 우네.
旻天應禱悔	저 하늘은 응당 화를 뉘우칠 것이니
廊廟豈無人 ³⁰⁾	낭묘 안에 어찌 인재 없기야 하라.

(가)는 張顯光이 쓴 박성의 행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행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박성은 비슬산에 머물고 있었는데, 영남 각지에서 자신과 교류하던 이들이 창의하자 이에 힘을 합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연보나 여타 기록에서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김성일 막하로 찾아가 참모를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³¹⁾ 제시한 기록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사실은 국가존망의 역사적 사건 앞에서 그가 직접 행동하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宣祖實錄』에서도 “本道에 함락되어 패전한 뒤에 무너져 사망으로 흩어진 자들이 도망한 군사나 패전한 병졸만이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

29) 張顯光, 『大菴集』 권5, <行狀>. “方倭賊猝至之日 公在琵琶山 必欲倡義舉事 頃刻之頃 事勢變易 既自無可奈何 則聞鄭仁弘募兵於陝川 金松菴奮起於高靈 郭季綏振起於宜寧 郭養靜從事於松菴 公以爲可就彼而同事 遂挈眷渡江 仍以調度自任 血誠募穀 繼餉頗裕 時金招諭始至右道 直到義陣 且喜且泣曰 圖存宗社 從此可期 遂請公爲參謀 公許之 期以死報”

30) 朴惺, 『大菴集』 권1, <高城路中有感 和杜少陵韻>.

31) 『鶴峯集』 연보에는 “前正郎 朴惺이 와서 만나 보았다. - 박성은 본래 선생의 친구였는데, 이때에 와서 보고는 함께 일하기로 약속하고 幕下에 머물게 하였다.[前正郎 朴惺來見 惺本先生故人 至是來見 約與同事 留置幕下]”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 인원들이 모두 산속으로 들어가 새나 짐승처럼 숨어 있으니 아무리 되풀이해서 알아듣도록 설득해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일에는 高靈에 사는 전 佐郎 金沔, 陝川에 사는 전 掌令 鄭仁弘이 그의 동지인 玄風에 사는 전 郡守 郭礪, 전 좌랑 朴愷, 幼學 權養 등과 더불어 鄉兵을 모집하니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³²⁾라는 기록이 나타나므로 보아 그는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에 가담하여 자신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고성으로 가는 길에 두보의 운에 화운하여 쓴 시이다. 그가 강원도 고성에 잠시 머물렀던 때는 1598년(선조 31)으로 임진왜란이 끝나기 전이었다. 그래서 그는 1구에서처럼 칠 년 동안이나 왜적들이 온 국토를 유린하고 다니는 데 대한 울분을 토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迂儒’라고 표현하며 다시 한번 비참한 심경을 토로한다. 이러한 절망과 외로움은 단지 자신에게서 그치지 않고 길가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채 울고 있는 아이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즉 박성은 고성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아이와 왜적에게 유린된 국토를 보고 비감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그의 비통한 심경은 작품의 말미에 이르러 희망을 내 비추는 것으로 전환된다. 일종의 시상 전환이 일어나는 것인데, 하늘이 분명 이러한 암울한 상황은 돌아봐 주리라는 것과 조정에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인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낸다.

그러나 비극적이고 절박한 현실의 상황은 앞서 제시한 작품처럼 희망을 가지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지은 다른 작품들에서 자신과 나라의 상황에 대한 비감은 지속적으로 드러난다. “늘그막에 동해 가를 떠도니, 나그네 울적한 마음 풀리지 않네. 산에는 따뜻한데 여전히 눈이 보이고, 하늘은 갠데 도리어 우레 울리네. 은둔하여 근심 없기를 기약하나, 하늘 돌릴 재주 없어 탄식이

32) 『宣祖實錄』 宣祖 25年 6月 28日 丙辰. “本道陷敗之餘 四散崩潰者 非但逃軍敗卒爲然 大小人民 舉入山林 鳥棲獸伏 雖反覆開諭 而無人應募 自近日高靈居前佐郎金沔 陝川居前掌令鄭仁弘 與其同志玄風前郡守郭礪 前佐郎朴愷 幼學權養等 召集鄉兵 從者頗衆”

나네.”³³⁾, “용맹하고 사기 또한 높아, 우리 백성 승전 소식 고대했네. 어찌하여 중국 장수 계략 부족하여, 패한 전철 다시 밟아 군사들을 잃었는가.”³⁴⁾라고 한 작품 등에서 이러한 한탄과 분노를 잘 살펴볼 수 있다. 계절은 봄으로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과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좌절감이 작품 전반에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조선의 승리에 큰 힘을 더해주리라 믿었던 명나라에게도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현실에 대한 생생한 감정들이 다양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번 성찰하여 천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한편 危難의 때에는 현실세계에 강한 관심을 보이면서 행동하고자 하였다. 자연물과 자연의 현상들에서 그가 읽어낸 것은 있는 그대로의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경전을 통해 배운 학문과 수양이었고, 그가 실제로 처했던 현실이었다.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사물인식이 이루어졌기에 그에게 있어 산수의 좋은 경치를 누리고 그에 대한 詩興의 표현은 약화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Ⅲ. 朴愷의 의식지향과 그 의미

앞선 장에서 박성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에게 있어 詩作의 대상이 되는 사물은 단순히 풍광을 읊는 데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장에서는 이러한 그의 의식이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 經書 탐독을 통한 爲己之學의 성취

33) 朴愷, 『大菴集』 권1, <夜吟>. “遲暮飄東海 羈懷鬱未開 山暄猶見雪 天霽却聞雷 遯世期無悶 旋乾歎不才”

34) 朴愷, 『大菴集』 권1, <聞天兵不利>. “勇若熊貔盛若雲 東民方佇捷書聞 如何漢將無奇策 不戒前車復喪軍”

박성은 어려서 『대학』을 배우러 裴紳의 문하에 출입했을 때부터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견지하였다. 그런 자세를 지녔기에 정구와 교유하면서도 그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하여 ‘스승과 벗의 중간’이라 표현하기도 한 것이다. 그는 평생 독서하기를 즐겼고, 그의 독서의 대상이 된 책들은 대체로 성리서였다. 이는 단순히 독서행위를 넘어서는 자기 수양의 과정이었다. 아래의 자료를 보자.

공의 문하에 이르는 선비들은 혹 말하기를 “공은 『소학』 읽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고, 혹은 “四書を 애독한다.”라고 하며, 혹은 『시경』과 『서경』과 『예기』를 종일토록 외고 읽는다.”라고 하고, 혹은 “항상 濂洛關閩의 책을 본다.”라고 하였다. 공은 말하기를 “책을 읽어도 마음에 터득하는 실체가 없으면 비록 만 권의 책을 다 읽은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이 학문을 좋아하고 공부한 것이 많기가 이와 같았다.³⁵⁾

박성이 얼마나 경서 읽기에 탐독하였던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 하겠다. 그는 항상 濂洛關閩의 책을 본다고 하였는데, 이는 周敦頤가 濂溪에, 程顥는 洛陽에, 張載는 關中에, 朱熹는 閩中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가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은 문장을 가다듬는다거나 역사서가 아닌 성리학과 관련된 책이 주를 이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늘그막에 마음 다해 공자 안자 배우면서, 털끝만큼의 명리도 상관할 것 없으라.”³⁶⁾라고 하면서 늙어서도 경서를 손에서 놓지 않음을 스스로 되새기며, 이것이 자신의 利慾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이 그에게 있어서 독서를 언제나 자신이 행할 바를 일러주는 지표였다. 앞선 장에서 살펴본 작품들 역시 그가 성리서를 주로 탐독했음을 알려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서의 구절을 수용하여 작품을 짓고 그 뜻을 담아 내었던 것이다. 다음의 작품을 보자.

35) 張顯光, 『大菴集』 권5, <行狀>. “士之踵公門者 或言公讀小學不輟 或言其愛玩四書 或言其將詩書禮記 終日誦讀 或言其常觀濂洛關閩之 其言曰讀書而無心得之實 雖讀盡萬卷何益哉 盖其嗜學積功 有如是也”

36) 朴惺, 『大菴集』 권1, <松齋書懷>. “晚暮專心學孔顏 一毫名利不相關”

思精義闡微言	정의 깊이 생각하여 은미한 말 드러내니
悅若摳衣入孔門	옷자락을 걷고 마치 공문에 들어간 듯하네.
查滓消融天理得	찌꺼기를 다 없애어 天理 얻었으니
霧空雲盡月無痕 ³⁷⁾	허공 구름 다 걷히자 달엔 아무 흔적 없네.

제시한 작품은 『논어』를 읽고 쓴 것이다. 『논어』를 읽으니 마치 공자 문하에 들어가 제자가 되어 배우는 듯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독서가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제어하여 찌꺼기를 모두 제거하고 天理를 얻게 해주는 행위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구름과 달이라는 두 가지 사물을 가져와 외물의 접촉과 덕성의 보존을 강조한다. 그에게 있어 『논어』는 자신이 외물과의 접촉에도 사심을 지니지 않고 본성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그는 말년에 특히 『논어』를 좋아하여 靑松에 거주할 때 시냇가에 초당을 짓고 현관을 ‘學齋顏’라 짓고, 동쪽 행랑은 ‘四勿’이라 하고, 서쪽 행랑은 ‘博約’이라 이름 짓고는 항상 그곳에서 『논어』를 읽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그가 지은 허다한 작품에서 『논어』의 내용을 통해 자신의 뜻을 펴 보이고자 한 것을 보면 그가 경전 공부를 통해 심신을 닦고자 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독서를 바탕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깨닫고자 했다. 다음의 작품을 보자.

月透南窓一室明	남쪽 창에 달빛 들어와 온 방안이 밝아지니
靈臺贏得本初清	영대 본디 처음의 그 맑음 듬뿍 얻었다네.
方知體用同源妙	바야흐로 알겠네 체와 용이 같은 근원이라는 묘함을
太極無中萬化生 ³⁸⁾	태극의 無 가운데에 오만 변화 생기누나.

달빛을 통해 자신이 앉아있는 방안이 밝아지고, ‘靈臺’, 즉 정신 또한

37) 朴惺, 『大菴集』 권1, <讀論語>.

38) 朴惺, 『大菴集』 권1, <夜坐>.

맑아짐을 이야기한다. 달빛이 어두운 방을 밝히듯, 정신 또한 진리를 체득하고 본성을 회복하면서 맑아질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의 현상을 통해 체와 용의 오묘한 이치를 터득했음을 3구에서 밝히고 있다. 도의 본체와 작용이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모든 존재와 가치의 근원이 되는 궁극적 실체가 바로 태극임을 말하고 있다. 이 작품은 주돈이의 『태극도설』을 떠올리게 할 뿐 아니라, 주자가 태극을 천지라는 세계와 만물이라는 세계 내의 모든 존재물이 생성되게 된 궁극근원이며, 천지만물의 존재원리³⁹⁾로 보았던 점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앞서 염락관민의 책을 항상 읽었다는 평도 떠올리게 한다. 어둠 속에서도 우주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학문적 근원 탐구와 자기수양을 놓지 않았던 모습이 잘 드러난다 하겠다.

앞선 장에서도 본 바 있듯이, 이처럼 그는 이념적 인식을 드러낼 때 밤과 달을 주된 인식대상으로 삼아 작품을 창작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우연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시어로 드러낸 것은 아니었지만, 『孟子』에서 “밤에 자라나는 바와 새벽의 맑은 기운에 그 好惡가 남들과 서로 가까운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낮에 하는 소행이 이것을 짓눌러 없애니, 짓눌러 없애기를 반복하면 夜氣가 족히 보존될 수 없고, 야기가 보존될 수 없으면 금수와 거리가 멀지 않게 된다.”⁴⁰⁾라고 한 구절을 떠올려 그의 사유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夜氣”는 외물을 접하지 않는 한밤중에 보존되는 본연의 맑은 기운을 뜻하는 것으로, 밤은 그 스스로 본연지성을 기르기 위해 선택된 시간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명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위기지학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다. 즉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사물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러한 수양의 경지를 다시 시로 드러내 보였던 것이다.

39) 정상봉, 「주자형이상학(朱子形而上學)의 심층구조(深層構造)－태극(太極)에 대한 이해(理解)－」, 『한국철학논집』33, 한국철학사연구회, 2012, 263쪽.

40) 『孟子』, 「告子上」, “其日夜之所息 平旦之氣 其好惡與人相近也者幾希 則其旦晝之所爲 有梏亡之矣 梏之反覆 則其夜氣不足以存 夜氣不足以存 則其違禽獸不遠矣”

2. 현실 비판을 통한 救國意志의 표출

앞서 서술한 바 있듯이 그는 나라에 전쟁이라는 큰 사건이 생기자, 의병 활동을 통해 실천적인 행동을 하고자 했다. 그는 김성일의 막하에 있으면서 김성일을 대신하여 밀양의 사민을 불러 모으기 위해 통문을 쓰기도 했다.⁴¹⁾ 통문이 가지는 글의 특성상 강렬하게 절개를 지켜 충성을 다해 몸을 바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는 글에서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는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뜻을 바꾸지 않으며, 용감하고 계략이 있는 사람은 강하고 약하다는 이유로 뜻이 꺾이지 않는 법”⁴²⁾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스스로가 생각한 자신의 길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그는 자신이 직접 의병 활동을 하며 군량을 조달하는 임무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당시 국정을 맡고 있던 조정 인사들에게 정확한 현실의 인식과 미래를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今夕聞南報	오늘 저녁 남쪽에서 온 소식 들으니
有烏賊戍間	왜적 진에 까마귀 떼 모였다 하네.
我師屯釜浦	우리 군사 부산포에 주둔해 있고
天將入甌山	중국 장수 증산성에 들어갔다네.
中外無男子	중외에 다 남자다운 남자가 없어
凶獍得保還	왜놈들이 산 채 도망치게 하였네.
終當雪讎恥	종당에는 이 수치를 씻어야 하니
廊廟莫偷閑 ⁴³⁾	조정에선 맘 한가히 지내지 마소.

제시한 작품은 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왜적들이 밤중에 도망친 것을 듣고 쓴 작품이다. 작품의 1-4구에서는 자신이 들은 왜적은 도망쳤고,

41) 이 통문은 『鶴峯集』 권3에 <通諭玄風土民文>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함락당한 고을에 따라 이름을 달리 하였으며, 『대암집』에 실린 통문과 비교해 보면 글자의 출입이 약간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유사하다.

42) 朴惺, 『大菴集』 권2, <召募密陽土民通文>. “忠義之士 不以死生易志 勇略之人 不以強弱自沮”

43) 朴惺, 『大菴集』 권1, <聞倭賊夜遁>.

이에 대항할 군사들은 다른 곳에 있다는 실제 사실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5구에서부터는 왜적이 도망친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그것은 바로 中外에 남자다운 남자가 없다는 것이다. 조정 안팎으로 왜적에 대항할 이가 없어 결국 왜적이 목숨을 보전해 도망갈 수 있었다며 한탄하고 있다. 그러면서 왜적이 도망간 것에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즉 오늘의 이 수치를 씻어야 하므로, 조정에서는 이를 대비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위난의 상황 속에서 현실에 대해 늘 예리한 시각을 견지하였는데, 이러한 면모는 전쟁 중에 체찰사였던 이원익에게 보낸 편지에서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중국 군사의 일부가 영남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중국 장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군사의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들이 영남의 고을에 머물러 있을 경우, 군량을 계속해서 댈 수 있습니까?”⁴⁴⁾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흉년이 든 상황에 묵은 곡식은 이미 다 떨어졌으니, 군량 조달에 대한 근심을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아울러 “때에 맞게 책략을 세워” 왜적을 막으라고 당부⁴⁵⁾하고 있다. 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여야만 국가와 백성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는 국가적 위난뿐만 아니라 정치적 현실 앞에서 출사하지 않고 향촌에 있으면서도 침묵하지 않았다. 당시 신하들끼리 봉당을 지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다음의 작품을 보자.

朋■儻如林	봉당 지어 숲과 같이 엉켜 있으니
臣隣孰協心	신하들 중 어느 누가 마음 합랴.
異同生好惡	같고 다른 데에 따라 호오 생기고
揚抑便升沉	억양함에 따라 부침 다르게 되네.
玉石焚難辨	옥석 함께 불에 타서 구분 못함에

44) 朴惺, 『大菴集』 권3, <上李梧里書>. “其天將姓名爲誰 軍數能幾許歟 留陣南州糧餉可能繼之耶”

45) 朴惺, 『大菴集』 권3, <上李梧里書>.

邦家病轉深
涓埃無路報
空有涕沾襟⁴⁶⁾

나라의 병 갈수록 더 깊어만지네.
임금 은혜 보답할 길 전혀 없으니
공연히 흘린 눈물 옷깃 적시네.

시제는 우연히 읊었다 하나 현실의 상황에 대해 뚜렷한 의식을 보이는 작품이다. 조정에서 國政을 보는 신하들이 저마다의 봉당을 지어 나무가 마구 자라 있는 숲과 같다 본 것이다.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같고 다름에 따라 좋고 나쁨도 생겨나고, 이에 따라 위치 또한 움직임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박성이 인식한 현재는 玉石이 구분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당파싸움으로 인해 화를 당하여 나라의 병만 깊어진 상태, 이를 두고 그는 거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달밤에 우연히 읊조린 작품에서도 “그저 泄泄함을 누가 능히 고치랴, 눈물 주룩 흘리며 대궐 바라보네.”⁴⁷⁾라고 하여 조정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아부하느라 굽신대는 것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처럼 신하들이 아첨하고 봉당을 지어 서로 당파에 따라 험뜯는 것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1597년(선조 30)에 올린 <論時弊疏>에서도 “임금이 반드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好惡가 한결같이 바른 데에서 나오게 하기를 저울대를 걸어 놓은 것과 같이해서 달아 보지 않더라도 무겁고 가벼움이 저절로 판별되게 하고, 거울을 놔둔 것과 같게 해서 비취 보려고 하지 않아도 아름답고 추함이 저절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⁴⁸⁾라고 하면서 임금 스스로도 평형을 갖추어 인재를 선발해 그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그는 언제나 현실적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판단한 바의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이는 그가 출사하여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연이어진 위난의 상황에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생각과 행동은 멈추지

46) 朴惺, 『大菴集』 권1, <偶吟>.

47) 朴惺, 『大菴集』 권1, <月夜偶吟>. “泄泄誰能改 漣洳向九重”

48) 朴惺, 『大菴集』 권4, <論時弊疏>. “爲人君者必也先正其心 使好惡一出於正 如權衡之懸 不作其輕重而輕重自辨 水鏡之設 無意於妍蚩而妍蚩自彰”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實’과 ‘道德’의 추구

앞선 절에서 그의 의식이 경서의 끊임없는 탐독을 통해 위기지학을 성취하고, 당대 현실을 비판하여 구국의지를 표출하는 데 닿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가 일찍이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나라에서 학행과 지조가 있는 자로 불려도 나아가지 않았지만,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뜻 맞는 이와 더불어 먼저 창의하여 국난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거나 정치현실에 대해 비판의식을 날카롭게 내세운 것 등의 행보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러한 고민이 드러나는 작품을 한 편 보자.

清晨盥手讀朱書	맑은 새벽 손을 씻고 『朱書』를 읽으니
處患要須自卷舒	어려운 때 처해서는 진퇴를 잘해야만 하네.
硬着脊梁方不挫	등뼈 세워 꺾이지 않게 해야 꺾이지 않으니
惺然親聽誘諄餘 ⁴⁹⁾	마치 직접 가르치는 말을 들은 듯하네.

제시한 작품은 주자서를 읽고 쓴 것이다. 이를 통해 그의 학문적 사유와 실천적 행동의 근원을 알 수 있다. 그는 단순히 주자서를 탐독하고 학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드러난다. 단순히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독서를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서의 내용을 행동의 실질적 판단준거로 삼아 실천적 행동을 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金時習을 떠올리면서 “비록 그러하나 법 행함엔 천명을 따라야 하니, 무슨 일로 몸 늙도록 미혹된 채 지내었나.”⁵⁰⁾라고 하여 김시습이 일생 동안 떠돌아다닌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는 天命을 따라 현실을 판단하고 그에 맞게 진퇴를 해야함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9) 朴惺, 『大菴集』 권1, <讀朱子書>.

50) 朴惺, 『大菴集』 권1, <梅月堂>. “雖然行法循天命 何事沉迷到白頭”

다음의 작품을 보자.

十載沉痾猶闕簡	십 년 동안 고질 앓는 속에서도 책을 보고
一生眞樂獨關門	한평생 참된 즐거움 속에 홀로 지내네.
欲知二樂精深趣	이 두 가지 즐거움의 깊은 정취 알고자 한다면
只在吾心不在言 ⁵¹⁾	다만 내 마음에 있지 말에 있는 것은 아니라네.

이의활의 시에 차운한 작품 가운데 일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인생의 眞樂이 바로 고요한 가운데서 은거하면서 책을 읽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책은 아마도 그가 평생 동안 탐독하였던 성리서일 것이다. 앞선 작품들에서 진퇴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 있다면, 여기서는 그러한 고민 없이 세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 시문의 창작에 몰두하지 않았다. 학문은 경서를 읽고 스스로 수양하고 정진하는 것으로, 실천은 실제 상황에서 결단력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는 李元禎(1622-1680)이 쓴 문집 서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원정이 그를 두고 “문장으로 말하자면 스스로 자임한 것은 아니었고 속마음은 말로 밝혔으며 말할 것은 글로 드러내었는데, 그것들은 모두가 俗累에서 벗어난 것으로 道德 중에서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다.”⁵²⁾라고 평하고 있는 것을 통해 그의 문학과 학문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장을 스스로 자임하지 않았다는 것과 글이 도덕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가 문장을 화려하게 꾸며 쓰는 것을 즐기지 않았으며, 도덕을 바탕으로 한 시문 창작을 주로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앞서 서술한 바 있듯이 그의 문집의 구성만 보아도 드러난다. 문

51) 朴惺, 『大菴集』 권1, <次李浩然草堂吟>.

52) 李元禎, 『大菴集』 권1, <大庵集序>. “若於文章 非所自任 而其心之因言以宣 其言之因文以著者 無非俗累上超脫 道德中流出”

집을 살펴보면 그가 남긴 시문은 그 수가 많지 않고, 남겨진 시문 가운데서도 만사나 증답시와 같은 실용시를 제외하면 수양논리에 의해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는 좋은 경치를 마주해서도 “다만 그윽한 맛말이 없는 속에 알아야만 하니, 사물 보고 시 지음도 괜히 헛말 하는 거네.”⁵³⁾라고 하면서 빼어난 경치를 보고 즐기며 詩興을 누리는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이의활이 그의 문장을 두고 “菽粟 같았다”⁵⁴⁾고 표현한 것도 이러한 그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고 할 것이다. “속속”은 ‘布帛菽粟’의 준말로, 옷감이나 곡식 등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을 말하는 것이다. 즉 그의 문장이 평범하면서도 세상에 큰 도움이 되는 문장이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또 스스로 성리서를 읽고 그 속에 내재한 오묘한 이치를 체득하고자 했으나 이를 다시 저서로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드러난다. 결국 세상에 아부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에 골몰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적인 수양에 힘쓰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당대의 현실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가 보인 모습은 결국 하나의 귀결점으로 통한다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實’과 ‘道德’이다. 그의 삶은 언제나 浮華함을 추구하지 않았고, 이러한 그의 의식은 문학작품 속에도 녹아들어 있으며, 이는 당시 그가 속해 있었던 영남학과 내부의 다양한 학파의 성향을 아우르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양 방향의 의식을 그 스스로 의식적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준 작품들에서도 강조하는 바가 비슷하게 드러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사위인 李宜活에게 준 시에서 “다만 한스러운 것은 時文이 좋은 자질을 망친 것으로, 모름지기 賓主를 구분하여 윤리 밝힐 학문하게.”⁵⁵⁾라고 한 것이나 蒼石 李堉(1560-1635)의 시를 차운하여 이의활과 황준운에게 준 시에서 “詞章은 白首되어도 분분하네.”⁵⁶⁾ 한 것

53) 朴惺, 『大菴集』 권1, <次李浩然草堂吟>. “只應默會幽貞味 覽物題詩亦費談”

54) 李宜活, 『大菴集』 권5 부록, <輓詞>. “文章如菽粟”

55) 朴惺, 『大菴集』 권1, <勉李浩然>. “只恨時文壞美質 須分賓主學明倫”

56) 朴惺, 『大菴集』 권1, <次李▣▣堉韻 戒浩然道光>. “詞章白首紛”

에서도 잘 드러난다. 손님과 주인을 구분하는 것은 안팎과 본말을 구분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스스로 학문의 요체를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수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본질이 현실적 활용에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李厚慶(1558-1630)이 쓴 만사에서 그를 두고 “학문은 誠敬을 말미암아 평평함이 水準器 같았고, 공부는 知行을 겸하여 도가 솟돌 같이 반반하였네.”⁵⁷⁾라고 한 것에서 그의 의식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당시 교유했던 이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그의 실제 삶과 작품 속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그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하고, 지식인으로서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할 때면 망설이지 않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그 지향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박성의 문학작품을 통해 그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의식지향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박성이 살았던 조선 중기는 우리의 역사에서 학문적,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 주목되는 시기이다. 주자학의 연구가 심화되었고, 사림파에 의한 정치가 실현되었으나 이후 각 정파 간의 대립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임진왜란을 겪으며 나라 안팎으로 혼란하던 시대였다. 이러한 시기였기에 당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각자 지향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였다.

그가 남긴 작품을 살펴보면, 박성은 문학을 본업으로 삼고 작가로 자임하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긴 인물은 아니었다. 때문에 사물을 인식하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즉물적 인식이 약화되고, 이념적 인식과 역사적 인

57) 李厚慶, 『大菴集』 권5 부록, <輓詞>, “學由誠敬平如準 功造知行道似砥”

식이 강화되어 나타난 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적 특징과 그의 삶에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책을 통해 배우고 수양에 힘쓰며, 실천적인 삶을 지향했기 때문에 단순히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여 묘사하는 즉물적 인식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그의 의식이 지향했던 바가 경서를 끊임없이 탐독하고 이를 통해 위기지학을 성취하는 한편, 내면의 수양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대한 예리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여 구국의 의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의 사물인식은 이념적 인식과 역사적 인식 두 방향으로 극대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의 삶이 시대적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학문에 힘썼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그가 ‘實’과 ‘道徳’에 바탕을 둔 문학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성리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이루어갔던 16세기의 보편적인 경향을 따르면서도, 임진왜란의 사회적 혼란과 현실의 모순에 대해 그 속에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고 문학작품을 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영남학과 내부의 다양한 학파적 성향을 아울러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이 논문은 2021년 8월 2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9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金誠一, 『鶴峯全集』

朴惺, 『大菴集』

정선용 역, 『국역 대암선생문집 상·하』, 대암선생문집국역편찬위원회, 2011.

남명학연구원 엮음, 『내암 정인홍』, 예문서원, 2010.

정우락, 『남명학과의 문학적 상상력』, 역락, 2009.

백기훈, 「大庵朴惺研究」,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전현희, 「주자(朱子)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한국철학논집』31, 한국철학사연구회, 2001, 289~319쪽.

정상봉, 「주자형이상학(朱子形而上學)의 심층구조(深層構造) -태극(太極)에 대한 이해(理解)-」, 『한국철학논집』33, 한국철학사연구회, 2012, 255~278쪽.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Abstract

Daeam(大菴) Park Sung(朴惺)'s Object Recognition and Consciousness

Choi, Eun-ju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way Daeam(大菴) Park Sung(朴惺, 1549-1606) perceives objects and his consciousness.

The mid-Joseon Dynasty, where Park Sung(朴惺) lived, is a period of attention in terms of academic and political thought in our history. The study of autophagy intensified, and politics was realized by the Sarim(士林派), but the confrontation between political factions intensified. In addition, historically, it was a time of confusion in and out of the countr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Because of this period, it was very important to judge the situation you were in, act and live according to your own direction.

In this school, Park Sung(朴惺)'s reasons were understood and looked at his objectives to see what he was aiming for. Through this, it was apparent that he followed the universal trend of writing in the 16th century while practicing Neo-Confucianism in his life, but led his life with his own standards and created literary works.

This led to the achievement of crisis science through constant self-discipline and the expression of friendship through criticism of reality, indicating that object recognition was maximized in both ideological and historical directions. This shows that his life did not turn a blind eye to the realities of the times, but worked hard on his studies, and suggests that his consciousness had a tendency based on

"sil(實)" and "moral(道德).

keywords :

Daeam(大菴) Park Sung(朴惺), Object Recognition, Consciousness, 16th century, the observation of things